

2021년 서평쓰기대회 우수상 수상작

우수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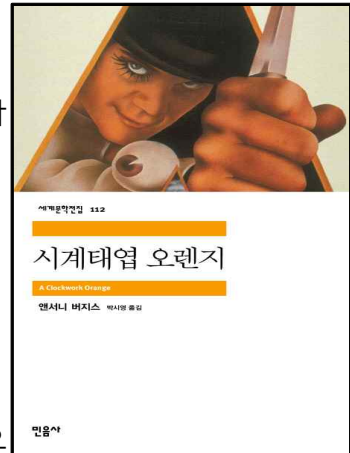
시계태엽 오렌지 / 앤서니 버지스 : 민음사, 2005

제목 : 범죄와 교화,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의지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들 등, 나는 그중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범죄에 관심이 많은 나는 우연히 알게 된 20세기 문제작 '시계태엽 오렌지' 또한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영화로 먼저 알게 된 책이지만, 작가인 앤서니 버지스가 자신의 책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영화의 원작 소설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는 글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영화 보기 전 원작부터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나는 책을 읽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책에 나오는 묘사는 사실적이었고, 상상 이상의 잔인함을 보여 줬으며, 급기야 두통까지 일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책에 빨려들어가게 되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알렉스는 폭행, 강도, 절도, 마약, 강간 등의 범죄를 일삼던 비행 청소년이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무리의 배신으로 범죄 현장에서 잡혔고, 죄질의 심각성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 시설이 아닌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그의 목적은 오직 교도소를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그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교도 방법인 '루도비코 요법'에 자원하게 되는데, 그곳의 교도 방법은 참으로 악랄했다. 약물을 주입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게 결속하고, 눈을 감는 잠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듯 눈꺼풀을 고정시켜 둔 채로 범죄 영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알렉스는 이후 욕망과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욕망과 감정마저 통제받는 무기력한 인간이 된다. 이 요법을 진행한 박사는 자신들은 범죄를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고차원적인 윤리, 즉, 그 요법으로 인해 모든 감정을 통제받게 되는 범죄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석방된 알렉스는 무기력한 생을 보내다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극적으



로 살아나게 되며 치료를 통해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신은 제대로 치료되었다는 알렉스의 독백과 함께 이후 알렉스의 삶, 그리고 그의 정착을 이야기하며 책은 끝이 난다.

여기서 우리는 “필자의 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버지스는 작품에 등장하는 루도비코 요법을 통해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보낸다. 결과적으로 알렉스는 실험을 통해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고, 외려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변함이 없었다.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인 우리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인가? 이 질문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오렌지지만 태엽을 감아야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오렌지는 정말 오렌지일까?

『시계태엽 오렌지』는 인간을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책을 통해 버지스는 최악의 인간을 보여 줌으로 정반대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알렉스도 스스로 선택을 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개인의 폭력에 집중되어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국가의 폭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지스는 “국가가 개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빼앗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위 의문은 사형 제도에도 적용된다. 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리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정답은 무엇일까? 그것을 규정하려면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후반부에도 여전히 알렉스의 만행은 진행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철드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서 작가가 알렉스를 용서했음을 알 수 있다. 버지스가 주장하고 있는 선을 작중 알렉스는 스스로 선택했기에 가능한 용서였던 것이다. 이로써 인간의 자유 의지로 선과 악을 떠나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작가는 긍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도덕적인 결말에 대한 작가의 의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책을 끝까지 정독해 보자. 그 이후에도 이 책이 폭력적, 야만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품은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으로부터 자유 의지를 앗아 가려는 국가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반성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앤서니 버지스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에 대한 철학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로 느껴 보자.